

## 2005년 국정홍보처 업무보고

- 격려사 -

지난 2년동안 국정홍보처가 가장 바쁘고 제일 많이 바뀌었을 것이다. 업무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 환골탈태해 왔다고 느껴진다. 그것을 잘 소화해 주었다. 보고를 들으면서 대개 시스템으로서 홍보와 관련된 제도로서는 골격이 거의 완성되었다고 생각한다. 홍보라는 것은 대단히 많은 기술과 수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실제로 홍보를 해야 하는 사람은 전 부처 전 공무원인데 각각 다른 수단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면 해낼 수도 없고 벽차고 감당할 수 없다. 가장 효과적인 홍보를 제도화해서 표준화 과정을 활용해서 각기 자신들이 정책사항을 알리는 것이다.

홍보의 내용에 관해서는 정책부서에서 하고 홍보처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콘텐츠에 개입하지만 대체적으로 시스템을 지원하는 큰 틀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다. 콘텐츠와 시스템을 분화시켜서 내용은 부처에서 홍보하는 것으로 간다. 정책내용 홍보는 정책부서가 책임지고 다하도록 하고 있는데, 막상 정책부서에서 이런 책임까지 지게 되어 금방 해내기가 쉽지 않다. 국정홍보처는 홍보하기 알맞은 제도도 만들고 각종 기법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고, 그렇게 훈련되게 하는 것이다. 정책부서가 지금의 국정홍보처 직원 이상의 홍보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그것을 홍보처가 갖게 해주는데 매체수단 기법에 있어서 프로수준, 정책하는 사람이 프로가 되게 지원

해줘야 한다.

지금까지 홍보의 개념이 많이 달라졌으며, 이 분야가 혁신이다. 국정홍보처는 좋은 사례를 많이 개발해서 끊임없이 많이 개발해야 하고 각 부처는 벤치마킹해야 한다. 그러면 앞서는 부처가 나온다. 그것들을 공유토록 하는 과정을 국정홍보처가 매개해야 한다. 작년 보고는 내가 지시한 것의 확인차원이었다. 올해는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과 구별되는 국정홍보처가 가는대로 놓아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가 이끌겠다고 하면 사고가 간혀버리게 된다. 이번 업무계획에는 내가 미처 생각하지 않았던 훨씬 새로운 것과 깊이 있는 정책들이 압도적으로 보고됐다. 보고내용 수준이 높아졌다. 작년 같으면 내가 아는체하고 잔소리했던 수준에서, 올해는 구체적인 분야에 대해서 아는 체 하지 말아야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국정홍보처가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문화가 깨지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것이 여러분 성적에 대한 평가다.

정부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동의를 필요하고, 국민동의를 얻어내는 방법은 설득이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사람의 마음을 열 수가 있고 거기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 제공하고 국민들과 사고를 함께 형성해야 한다. 홍보기능의 중요성은, 21세기 새로운 OECD 선진국들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거버넌스시대에 맞는, 국민의 동의를 이룰 수 있는 정치적 수단기법을 개발해야 한다. 국정홍보처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기법을 개발해야 한다. 정책에 관한 다양한 매체 모니터링을 잘하면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방향제시를 얻을 수 있고, 국민의 뜻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는 것이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그런데 국정홍보처 혼자서 하기 어려우니 각 부처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매체로부터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가감없이 흡수하고 가감없이 국민

들에게 전달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고집이 있고 매체는 매체대로 성격이 있어서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정부와 매체는 적절한 규칙을 만들어 페어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건설적인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퇴행적인 것도 있는데, 건설적으로 경쟁해 수준을 높여나가게 하는 것이 모니터링 핵심이다.

공무원의 위상 자존심을 높이기 위한 과정으로 국정홍보처는 정책부서를 설득해 나가야 한다. 언론에 끌려갈게 아니라 정부의 사회적 의제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 소방홍보가 아니라 사전에 선제하는 홍보를 해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장에서 의제를 주도하는 것이 엘리트 집단이다. 공무원들의 자질은 충분히 갖추고 있고 성의를 가지고 있다. 국정홍보처가 참여정부가 2년 되었는데 확실히 변화한 곳이라고 첫 번째로 내세울 만큼 어려운 일을 감당해 주었다.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